
새국어생활 걸어온 길, 걸어갈 길

- '특집'을 중심으로 -

한재영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들어가며

국립국어원이 임의 연구 기관인 국어연구소의 이름으로 문을 연 이후 스물여섯 해,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른 국립 기관으로 스무 해. 시간은 무척 빠르게도 지난 셈이다. 그 시간 동안 단지 시간만이 흘러간 것은 아니어서 국립국어원은 주어진 제 몫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정하고 다듬는 작업이 국립국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최고의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의 간행도 국립국어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언어 예절을 살피고, 국어의 순화를 도모하는 일도 그간 이루어낸 주요 사업이었으며, 국어학계의 연구 업적과 국어 관련 현황을 정리한 국어학 연감과 국어연감의 간행도 학계는 물론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계 획21을 통한 국어의 정보화와 한국어의 보급을 통한 세계화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도 국립국어원의 주요 업무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는 그를 위한 사업 내용의 일부인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다른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기관지인 《국어생활》의 간행을 들 수 있다. 1984년 10월 《국어생활》의 이름으로 창간되어 1991년 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직제가 확정된 이후 《새국어생활》로 명칭을 바꾸어 이어오고 있는 《국어생활》(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어생활》이라 이르기로 한다.)의 간행은 일견 국립국어원 본연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를 가지는 부차적인 업무인 듯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84년 10월의 창간사에 따르면, ‘언어는 방임하여 두면 혼탁해 가기 쉬워 국가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국어생활》이 발간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국어생활》에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과 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는 혼탁한 말을 다듬어 소개하기도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어에 관한 간략한 학문적 지식도 알리고 문학 작품, 속담, 수수께끼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두가 국어를 통한 우리 생활의 한 모습이며, 또 이런 일이 국어 생활을 바르게 이끄는 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당시 국어연구소의 연구와 어문 정책의 수행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생활》에 ‘특집’을 마련한 것은 그러한 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어생활》의 특집 내용과 구성 방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이 국어연구소에서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그리고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달리함에 따라 《국어생활》도 그 성격을 바꾸어 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국어생활》의 창간 이래로 다루어온 특집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과 《국어생활》의 지난 시간을 정리하여 보고, 나아갈 바를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살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특집'의 주제와 내용을 통하여 그간 국립국어원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여 온 국립국어원의 활동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걸어온 길

국립국어원이 국립 기관으로 직제를 갖추게 되는 1990년 겨울까지 《국어생활》은 총 23호를 간행하였고, 이후 국립 기관으로 모습을 바꾼 1991년 봄 이래 계간으로 총 79호가 간행되었다. 매호마다 '특집'이 구성되었고, 모두 102호가 간행되었으니 특집의 목록도 102가지나 되는 셈이다. 《국어생활》에서 다룬 '특집'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가져왔던 관심의 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특집의 주제를 가나다순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1)과 같다.

- (1) ① 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 향상
- ② 국어 순화
- ③ 국어 정보화
- ④ 국어학사·문화 인물
- ⑤ 남북 언어
- ⑥ 대우법
- ⑦ 매체와 언어
- ⑧ 문법
- ⑨ 문자
- ⑩ 표기
- ⑪ 문체
- ⑫ 방언
- ⑬ 법과 제도

- ㉔ 사전
- ㉕ 어문 규범
- ㉖ 어휘(한자어, 외래어 포함)
- ㉗ 언어 예절
- ㉘ 언어 정책
- ㉙ 언어와 인접 학문(학제적 연구)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국어 생활과 관련된 또는 관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망라되어, 별다른 문제가 있을 듯 보이지 않는다. 당면한 현안이 '특집'의 주제가 되고, 그때그때의 관심사를 '특집'의 주제로 삼았다지만 비교적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하여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일을 진행하며 미진하였던 점을 돌아보고, 아쉬웠던 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특집으로 다루어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그간의 《국어생활》을 되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그를 위하여 우리는 《국어생활》에서 다루어 온 '특집'의 내용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시적인 측면이 '특집'의 주제 선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미시적인 측면은 주제를 다룬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가리킨다.

1. 거시적인 측면

《국어생활》에서 '특집'으로 다루어 온 내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국어생활》을 간행 시기별로 갈라볼 필요가 있다. 간행 시기에 따라 《국어생활》의 편찬 의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 ‘특집’의 구성 방침도 달라져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생활》의 간행 시기는 다음 (2)에서와 같이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① 제1기: 국어연구소 시기(1984. 10.~1991. 1.)
- ② 제2기: 국립국어연구원 시기(1991. 1.~2004. 11.)
- ③ 제3기: 국립국어원 시기(2004. 11.~현재)

이와 같은 간행 시기의 차이에 따른 ‘특집’ 구성의 첫 변화는 가시적이다. 우선 《국어생활》이라는 기관지의 명칭을 《새국어생활》로 바꾸고 발간 호수도 새로이 시작한 것이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관지의 성격도 바뀐 것이다. 《새국어생활》로의 변화에 대하여 간행사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3) ‘새국어생활’은 국어연구소에서 발행하여 온 ‘국어생활’을 새로이 계승한다는 뜻으로만 제호를 고친 것이 아니다.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정보와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제공하여 온 국민의 국어생활이 새 모습을 갖도록 한다는 잡지 간행의 뜻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국어생활’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새 국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뜻으로 ‘새국어생활’이 간행된다.(밑줄은 필자)

앞서 간행되어 온 《국어생활》이 국민 교양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데에 비하여, 어문 정책의 홍보와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전문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2004년 겨울호인 14권 4호부터 시작되는 제3기의 《국어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별도의 간행사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어찌 보면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생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이러한 시기 구분이 가지는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정보와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발행 방침이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바뀐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4)는 제3기 《국어생활》에서 다룬 주제 목록이다.

- (4) 제14권 4호(2004년 겨울): 언어와 사회
- 제15권 1호(2005년 봄): 국어 순화
- 제15권 2호(2005년 여름):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생활
- 제15권 3호(2005년 가을):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 제15권 4호(2005년 겨울):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 제16권 1호(2006년 봄): 소외 계층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 제16권 2호(2006년 여름):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 제16권 3호(2006년 가을):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 제16권 4호(2006년 겨울): 신어
- 제17권 1호(2007년 봄): 전문용어와 국어생활
- 제17권 2호(2007년 여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 제17권 3호(2007년 가을):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
- 제17권 4호(2007년 겨울): 사라져 가는 언어들
- 제18권 1호(2008년 봄):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 제18권 2호(2008년 여름): 영어 공교육 강화와 한국어
- 제18권 3호(2008년 가을):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 제18권 4호(2008년 겨울): 외래어 표기 반성
- 제19권 1호(2009년 봄): 세종계획의 성과와 전망
- 제19권 2호(2009년 여름): 국민의 문해력
- 제19권 3호(2009년 가을): 국어능력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

- 제19권 4호(2009년 겨울):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
- 제20권 1호(2010년 봄):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
- 제20권 2호(2010년 여름):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제20권 3호(2010년 가을):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

주로 언어 정책이라든가 국어 보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특집의 주제로 선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관의 명칭에서 ‘연구’를 빼어 낸 것에 대하여 ‘연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는 물론 그 밖의 국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려 하였던 것이 그릇된 것은 아니었던가 싶다. 언어 정책이라든가 국어 보급에 주된 관심을 가지도록 한 간행 방침은, 제2기 이후 정기적으로 ‘특집’의 주제가 되었던 국어학사상의 인물 탐구에 대한 시도가 제3기에 들어 전혀 시도되지 않은 까닭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특집’의 주제로 다루었던 국어학사상의 인물과 그를 다룬 호수는 다음의 (5)와 같다.

- (5) 제3권 3호(1983년 가을):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4권 3호(1994년 가을): 일석 이회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5권 3호(1995년 가을): 한결 김윤경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6권 3호(1996년 가을):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7권 3호(1997년 가을): 열운 장지영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8권 3호(1998년 가을):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9권 3호(1999년 가을):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 제10권 3호(2000년 가을): 서파 유희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제11권 3호(2001년 가을): 설릉 선생과 국어
- 제12권 3호(2002년 가을): 신숙주의 학문과 인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특집’의 내용을 살펴면서 ‘특집’의 주제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던가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듯하다. 우선 적용하였던 주제 선정의 1차적인 원칙은 ‘당시의 현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1기 《국어생활》에서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가 그것이었으며, 제2기 전반의 《국어생활》에서의 국어사전, 후반의 《국어생활》에서의 남북 언어라든가 국어의 보급과 세계화 등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제2기 전반의 ‘특집’ 선정 기준으로 한글날이 속한 가을호에 정기적으로 문화 인물을 다루었던 사실도 아울러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주제 선정의 원칙은 이만한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 밖의 ‘특집’ 주제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한 주제가 시기를 달리하여 ‘특집’의 주제로 선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성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도 변할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사한 주제를 다시 ‘특집’의 주제로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집필을 의뢰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주제의 성격에 따라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나, 유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서 동일한 집필자에게 다시 집필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가를 생각하여 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 유사한 주제를 다루지 않은 집필자도 있으나, 다음 (6)은 ‘특집’에 원고를 2회 이상 기고한 집필 횟수별 가나다순 필자들의 명단이다. 이름 다음의 숫자는 집필 횟수이다.

(6) 강신항 10	김광해 7	김민수 6
김세중 9	박갑수 7	남중현 6
이익섭 8	강인선 6	이상규 6
홍윤표 8	권재일 6	임홍빈 6

조남호	6	송민	3	서정수	2
고영근	5	송철의	3	송향근	2
권인한	5	안병희	3	안성근	2
민현식	5	안상순	3	유구상	2
심재기	5	양명희	3	유재원	2
유만근	5	이기문	3	유장균	2
이강로	5	이돈주	3	윤회원	2
이병근	5	장세경	3	이관규	2
정회원	5	전수태	3	이성영	2
홍계성	5	정재영	3	이성현	2
김계곤	4	조계수	3	이승환	2
김회진	4	채완	3	이용주	2
남기심	4	최명옥	3	이은정	2
박경래	4	곽충구	2	이용호	2
송기중	4	김기종	2	이정복	2
송기형	4	김문장	2	이주행	2
이기갑	4	김병선	2	이한섭	2
이승재 ^o	4	김석향	2	이현복	2
이용백	4	김순임	2	이현우	2
임동훈	4	김승국	2	이현주	2
전광현	4	김용직	2	이회자	2
정양완	4	김정수	2	임철성	2
허웅	4	김장섭	2	장경희	2
허철구	4	김충희	2	정광	2
김석득	3	김홍규	2	정길남	2
김영배	3	박민규	2	정인상	2
김완진	3	박병채	2	정재도	2
김하수	3	박양규	2	정호성	2
남광우	3	박영순	2	정희장	2
문효근	3	박용관	2	최호철	2
박장원	3	서상규	2	허성도	2

°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특집'에 보이는 '사전의 방향 잡기'의 필자로는 한글 표기 성명이 동일한 동명이인이다.

'특집'의 이름으로 실린 원고 655편 가운데 위 (6)의 집필자들에 의하여 집필된 원고의 수가 350편으로 53.4%에 이른다.

2. 미시적인 측면

여기서는 '특집'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집'의 주제가 멋지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특집'은 성공한 '특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주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된 세부 내용들의 순위는 균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각론에서 언급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몇몇 사례를 간단히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1993년 겨울에 간행된 제3권 4호에서는 '북한의 국어 사전'을 특집의 주제로 삼아 북한 국어 사전의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를 위하여 '북한 사전의 올림말, 올림말의 관련 어휘 처리, 북한 사전의 발음, 북한 사전의 다듬은 말'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전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표제항은 물론 미시구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단지 발음만을 살피고 있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과 관련하여서는 1998년 봄의 제8권 1호에서도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접두사와 접미사, 의존명사, 조사, 어미, 명사, 동사 형용사, 표준 발음' 등의 내용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적인 처리에서 늘 문제가 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배제되어 있어 역시 충분한 논의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특집'의 주제와 아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나 다른 내용들과

성격이 다르거나 중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특집’ 구성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0년 가을에 간행된 제20권 3호에서의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논의하면서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전개 현황, 지역어 조사·보존의 방법론,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다룬 것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는 다른 내용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표기 반성’을 다룬 2008년 겨울의 제18권 4호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일반적인 논의와 함께 다룬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외래어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유사한 경우로는 1994년 봄의 제4권 1호에서 다룬 ‘한국의 지명’과 1988년 봄의 《국어생활》 12호에서 다룬 ‘바람직한 국어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명의 경우 일반론에 이어지는 각론으로 ‘부여, 서울, 제주, 북한’ 등의 지명을 다루었으나 여타 지역이 배제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어과 교육의 현황과 그 특성, 말하기와 듣기 교육, 독서 교육의 나아갈 방향, 글짓기 교육, 바람직한 언어 교육’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내용에 ‘정독과 그 보고서 작성의 훈련’이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986년 겨울호인 《국어생활》 7호에서 다룬 ‘국어 사전과 그 편찬’에서는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사전 : 그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문제,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사전 주석에 대하여’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사전의 편찬 문제를 다루는 자리라는 점에서 사전의 본격이라든가 조판 또는 그림이나 사진의 사용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2005년 봄호인 제15권 1호에서 다룬 ‘국어 순화’에서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 의학 용어의 순화와 미래, 법령문의 순화와 그 이후, 남북 교과서

를 통해 본 전문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전문 용어, 전문 용어의 순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용어의 순화 방안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어 순화의 성과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용어의 순화 방안 못지않게 순화된 결과의 보급 방안과 성공하지 못한 원인의 파악에도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6년 봄호인 《국어생활》 4호에서 다룬 ‘개화기의 우리 어문에 대한 자각과 그 연구’와 1987년 봄호인 《국어생활》 8호에서 다룬 ‘국어 속의 한자어’의 경우에는 ‘특집’ 자체가 추구하는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각각의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유의미한 것이었으나, 그들을 꿰어 하나의 ‘특집’으로 구성하여 ‘특집’ 자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Ⅲ. 걸어갈 길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생활》에서 다루어온 ‘특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집’을 구성하면서 고려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1. 특집의 준비

먼저 필요한 것은 ‘특집’ 구성의 원칙이다. 이는 장기적인 기본 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특집’ 구성의 1차적인 원칙이 현실적인 관심사나 현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미 다루어온 ‘특집’의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는 장기 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태도에서는 다소 차

이를 보이기도 하나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야 하며, 그 까닭이 표방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 기본 계획의 내용에는 '특집' 주제의 목록뿐만 아니라 그를 다룰 필자의 명단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직접 '특집'으로 다루게 될 경우의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을지라도 보다 충실한 결과를 구하는 데에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보다 충실한 내용을 구하기 위하여 '특집'의 원고 집필 의뢰는 1년 내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역시 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 특집으로 다룬 내용에 대한 처치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특집'이 '특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집'에서 다룬 결과가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립국어원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며,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나 민간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 순화나 어문 규정과 같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라면 홍보 전략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립국어원 내에서의 작업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겠으나, '특집'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의 후속 처리 결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라고 하겠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간행된 《국어생활》에서 다룬 '특집'의 대강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특집'의 목록을 통하여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관심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특집'을 선정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장기 계획의 내용에는 '특집'의 목록과 아울러 그를 다룰 예상 집필자들의 명단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특집' 각각의 내용을 살펴면서 우리는 '특집'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목소리가 선명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글들의 위상과 중위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집'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망라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아울러 '특집'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가 '특집'을 통하여 대안을 찾아나가고 국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면 '특집'이 '특집'을 넘어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특집'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좋았던 점, 잘 된 점 그리하여 장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 넉넉지 않은 지면을 통하여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아쉽고 부족한 점을 먼저 들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여유롭지 못한 시간을 통하여 행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거칠 수밖에 없었음도 인정한다. 이해를 구한다.